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10-2차 임시회의
	일자	2021.02.17. 17:00
	장소	ZOOM 화상회의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X	X	○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도중참석)	X	○	X	○	○	9/13

1. 논의안건

등록금환불 대책논의

간호: 질문있다. 안건지 별도로 없는지?

총: 안건지 따로 없다 오늘은. 사회과학대학에서 질의해주신 두 가지 질의 제가 답변을 받아왔다. 우선 1번에 대한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다. 25억 그러니까 인건비 명목으로 책정되어있는 36억원 그리고 25억 원 인건비 별개의 인건비이냐라고 질문해주셨는데 36억원에 25억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2번 2020년도 가결산안에 왜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명시되어있는지에 대한 질문 해주셨는데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계정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명목이다 보니 예비비의 항목으로 지출내역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지출내역에 아무것도 기재되어있지 않다라고 말씀해주셨다. 이해가 되셨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계정으로 전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 명목의 지출내역은 없다라는 답변 주셨다. 일전에 제가 지급방식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학교랑 컨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다. 약 한 시간 전에 예산팀을 방문한 결과 기획처장은 아직까지 선별적 지급으로 가야된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일 환불협의체 소집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배경이 무엇이나. 학생 측은 보편적 지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획처장 및 학교본부는 선별적으로 가야된다는 의견이 아직까지 합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금요일이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하자라는 입장을 말씀해주셨다. 요청하신 예비비 자료를 한 번 검토해봤을 거라 생각한다.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간호.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예비비가 어쨌든 간에 61억이 나왔으니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거였다. 어쨌든 간에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자료가 넘어온 걸 보면 예비비 안에서 남은 돈이 없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처음에 예비비를 사용하자고 했던 게 예비비에 대한 본예산 61억은 있는데 가결산은 책정되어있지 않고 증감엔 또 들어가 있어서 그런건데 예비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타계정으로 전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산에도 없다라고 하면 증감에는 왜 들어간건지 제가 이해가 안되서.

총: 증감은 되었지만 다른 항목에 포함이 된 것이다 금액

간호.비: 다른 데에 사용했다는 건데

총: 요청하신 자료에 사용내역이 기재가 되어있다. 요청한 자료를 받고 검토를 진행한 상황까지 왔고, 대표자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경경.정: 예비비 관련해서 결산안 작성할 때 사용되었던 지출내역은 사용된 계정에 대한 금액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 작성되었다고 이해를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예비비 자료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7.8억에 대한 사항을 보편적 지급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을 학교에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여쭙고 싶다.

사과.정: 총학생회장단의 생각이 궁금하다. 어떤 의견이실지.

총: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저희가 2차 회의 때 추가가용재원이 있다면 더 확보를 해주고, 적극적인 재정을 마련해달라는 학생 측의 요구를 전달한 바가 있다. 그리고 학교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왜 돈이 없는지에 대한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를 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 학교 측은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대부분의 회신을 줬고, 저희는 그것을 검토를 했었다. 어쨌든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간호.비: 간호대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요청은 다 한 것 같고, 이에 대한 논의도 한 것 같은데, 남은 등록금환불협의에서 아직 보편적이나 선별적이나 이것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인 것 같다. 내일 원래 3차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다고 하시고 금요일도 만약 안 되면 다음주밖에 없는 건데, 다음 주에 3차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3차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3월 개강이 다가와서 이렇게 되면 가결산, 지금 현재 결산이 완전 확정된 게 아닌데 결산이 되기 전에 등록금환불협의를 완료하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요청한 자료들 토대로 7.8억에 대한 보편적 지급 강력하게 주장해서 해당 부분 따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이제 자료를 모두 검토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끌어올 예산이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7.8억에 대한 보편적 지급은 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총: 저도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액수를 떠나서 보편적 지급은 저희가 확실히 확정을 여기서 짓고 요구를 계속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저희끼리 논의를 진행했는데 예산의 항목에서는 가용할 예산이 없고, 지금 마련된 7.8억의 경우는 20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21년도 예산에서 가용하라고 했을 때는 7.8억이 아닌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정기회의에서 예비비 혹은 적립금 두 가지 요구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 협의체나 협의체가 있기 전 마지막으로 적립금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고받고의 과정이 아니라 학생 측에서 적립금 가용을 요구하는 표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금액확정기한이 다가오다 보니 예전에 말씀드린 4월에 법이 개정된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총: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2020년도 2학기 등록금환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산은 2020년도 2학기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2021년도 본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도 저촉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1년도에도 당연히 살림살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다. 4월 달에 법 개정되는데 이 개정이 현재 2학기 환불건에 대해서 얼마나 효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긴 하다. 대표자분들의 의견도 여쭙고 싶다.

부총: 방금 그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2학기 등록금 환불의 요건 중 하나로 제시 드린 것이 아니고, 다음 학기에도 8주간 비대면이 반복되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비대면 학기를 겪으면서 받았던 피해나 불편을 종합해서, 등록금 환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추가적인 보상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입장까지 고려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지금 얘기하는 거랑은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송실대에서 처음으로 등록금환불을 진행한 기사를 봤다.

총: 그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자면 송실대학교같은 경우 2021학년도 1학기에 지급되는 것이고, 코로나 극복 특별 장학금이라고 해서 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한다.

통공.정: 그러면 20-2학기는 지급이 안 된 건지?

총: 지급이 안 되었다. 현재 수도권 대학에서 2020년도 2학기 환불이 진행된 대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경.정: 우선적으로 아까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행정부처간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되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 지금 등록금환불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는 20년도 2학기에 대한 내용을 확정짓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7.8억의 보편적 지급에 대한 내용을 학교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를 위한 보장을 받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이 된다. 지금 이 3차 회의에는 7.8억에 대한 보편적 지급을 확정짓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총: 말씀해주신 것은 3차 회의 때는 7.8억 보편적 지급을 확정을 짓고, 또 다른 협의체를 소집을 하거나 해서 2021학년도 1학기를 대비하자는 말씀인지?

경경.정: 네. 맞다.

간호.비: 우선적으로 일단 보편적 지급이나 선별적 지급이나 이것도 확정이 안 됐고, 심지어 그 의견차이로 인해서 협의체마저 결렬된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결정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이 되면 회기가 돌아서 결산 전에 학교가 선별적으로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의를 봐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법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협의체는 2020년도 2학기 등록금환불협의체인데 해당 부분은 4월부터 되기 때문에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환불과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건 그때 협의체를 또 해서 하던지 해야지 지금 협의체와는 성격이 너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 지금 2020년도 2학기에 다녔던 재학생 분들이 졸업할 수도 있고 휴학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에 대한 환불협의체이다. 그런데 4월부터 진행되는 것은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협의체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통공.정: 의견 드리자면 경경대와 간호대가 했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추가로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과연 학우분들께서 7.8억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3차 협의체에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본 대외비 수준의 자료들을 공개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이 자료들을 다 봤지만 이 자료들이 큰 틀에서 작성되어서 세세하지 않기 때문에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우분들께서도 어떤 이런 자료 공개 없이 말로써만 어떤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납득을 하시고 학교의 입장을 신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학교 측의 대외비 내용 문서를 학생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면 한다.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도 궁금하다.

총: 우선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예산안은 2월 25일에 전체공개가 된다. 2020년도 결산자료는 회계감사라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4월에 회계감사를 받고 5월달에 모든 학내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한다. 우선 물론 대외비 자료를 전체공개등급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모든 학우분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가결예산안은 아마 학우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측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좀 더 용어나 자료들을 쉽게 재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다. 그래서 학교도 그런 자료를 좀 쉽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달받은바가 있다. 총장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예산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라고 전달받았다.

사과.부: 4월 이후에 기존의 문서를 열람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런 자료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가 배포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으신지?

총: 우선 그럴 계획이라고 전달받았는데 무조건 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전달받진 못했다.

사과.부: 감사하다.

부총: 방금 공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어떤 근거자료를 학생들이 보고 이해하는 차원도 있지만 일단 학생회가 어쨌든 만약에 최종 금액이 7.8억이라고 하면 이걸 마무리한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양해를 구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용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료공개를 선제적으로 요구를 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를 하든지, 저희 차원에서 진행을 하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간호.비: 그런데 우선적으로 물론 학우분들께서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를 더 많이 해주시고 충분히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들도 맞지만 처음에 이 얘기가 지금 시작이 된 게 학우분들께서 납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7.8억보다 더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을 누군가 하셔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 학우분들께서는 이러한 협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보다 자료를 열람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학교 실정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7.8억 외에 무언가를 더 요구한다면 어째서 요구하는 거고 어디서 요구할 수 있는지 논의해서 7.8억으로 확정지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학우들께 설명하는 것은 부수적인 요구가 아닌,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요구인거고 저희가 나중에 공지를 할 때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협의체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해할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하는 거니까 저는 7.8억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할지 이대로 요구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경경.정: 지금 협의체 진행 과정도 2월 말까지는 끝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기에도 생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충분한 예산 관련한 자료를 많이 봤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7 지금은 7.8억을 수용하고 이 사항을 어떻게 학우분들께 안내를 드릴 것이며 보편적 지급을 어떻게 학교한테 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도 방금 경영대 회장님 말씀해주셨던 의견에 동의한다.

의과.부: 의과대학도 방금 경영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동의한다.

부총: 저는 일단 예산이나 가결산 본예산이든 20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이나 가결산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추가 가용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도 동의하고 인지를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립기금이라고 했는데 일전에 행정부처 간담회에서는 임의특정목적기금과 임의장학기금의 용도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일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학기금을 통해서 추가가용예산을 마련하라고 한 번 더 요구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그 과정을 거치고야 저희가 7.8억에 대해서 학생대표자들도 합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료를 파악하고 학교의 예산사용내역을 검토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간호.비: 그 협의체에 들어갔던 제가 들었을 때 임의장학기금이라는 그것이 임의라는 단어 자체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일 뿐이지 목적이 모두 있는 돈이고, 때문에 장학금의 일부는 이미 1학기 특별

장학금의 일부로 사용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라고 들었다. 나머지는 발전기금의 목적에 따라 또는 학문단위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1학기 특별장학금으로 사용하여 2학기 특별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들어서 이 돈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부총: 방금 자료를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중앙운영위원회가 추가 가용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학생사회측에 그 메시지를 충분히 표현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최종적인 합의안에 대한 논의를 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이후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협의체에 가서 7.8억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것을 정보보고를 올리는 차원에서 끝나게 됐을 때는 학생 측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이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다. 대표자분들 많이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희가 뭐 조금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협의체 구성이 1차 구성이 되고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 환불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거는 당연히 학우분들이다.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사안이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그래서 3차 회의때는 7.8억을 수용을 하고 보편적 지급을 요구를 하고 또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또 다시 요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대표자분들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질문 있다. 지금 협의체 자체 3차 협의체에서 7.8억 이외에 추가 가용 비용을 학교에 요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3차 협의체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의체 구성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비용을 학교 측에 요구했을 때 3차 협의체 내에서 학교 측의 답변이 오지 않거나 거절 답변을 내비친다면 그 상태에서 7.8억을 수용하고 협의체 내에서 보편적 지급을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협의체 구성 요구를 원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부총: 일단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거나 혹은 다시 회의를 열자고 하거나라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다른 예산에 관한 사항들은 다 내역을 받았다. 그것에 관해서는 학생대표자 차원에서도 학생사회 측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적립금같은 경우는 명목이 다양하고 저희가 일전에 설명을 들은 것도 명목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것들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구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점적인 것은 그것을 학교 측에 요구를 하고 어떤 사유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고 한다면 학교 측에서 그것을 소상히 설명을 하는 그 과정이 학생 측에도 모두 공개가 된 시점에서 혹은 그것의 공개를 보장받는 시점에서라야 학생 측이 7.8억을 수용하는 데 대표자로서의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경경.정: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분들께 저희가 하는 행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3차 회의 조차도 지금 미뤄져있는 상태인데 3차 회의에서 7.8억에 대한 수용 관련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시기가 될지도 모르겠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명분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학교 측의 대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아니면 7.8억밖에 없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경경대는 혹여나 등록금협의체에서 학교 측에서 7.8억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라고 하시면 7.8억을 수용하고 보편적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다.

간호.비: 이렇게 생각을 한다. 물론 더 뭔가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요구를 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뭘 더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만약에 학우분들을 대표해서 더 뭔가를 요구해

야 된다고 하신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참고가 될 것 같다. 더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뭘 더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저희가 열심히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아니고 여기서 이제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고 더 효율적이고 실리있게 뭔가 챙겨가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 결정에 대해서 협의 과정과 내용들을 무엇을 보아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담아서 학우분들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자료를 봤을 때 판단하는 것은 학우분들의 몫인거고, 학우분들께서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무언가를 따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했고 이런 것들을 요구했구나를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남은 건 협의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7.8억을 수용해서 협의를 끝내는 게 맞지 않나, 보편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마지막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을 했다.

부총: 뭘 더 요구를 해야 되냐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립기금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마저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방향은 방금 두 단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들에게 이것을 소상히 설명하는 부분과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학교가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면 선별적 지급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정도로 차후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차후 협의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립기금에 대한 요구는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적립기금이라는 용도를 따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예산가용요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행해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간호.비: 말씀하시는 것은 적립기금에 대한 자료요청이라든지 적립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건지?

부총: 네. 저희가 내역을 보고 파악을 하는 것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측에 적립기금을 추가적으로 가용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응답이나 최종적인 결과는 실질적인 통계나 이런 걸로써 정해질 것이다.

총: 두 단위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적립기금 중 장학기금에 관련된 질의는 행정부처 간 간담회 때 한 걸로 기억을 한다. 아마 적립기금에 관련된 요구를 한다고 한 들 당시 답변과 동일한 답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 나올 것이다. 기금이라는 것이 기부자의 의도대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 각 단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우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3차 회의에서 7.8억을 수용을 하고 다른 기타 부가사항을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내주셔서라.

인문.정: 제가 지금 회의 중간에 들어와서, 방금 새내기 프로그램이 끝나서 어떤 의견을 남겨야 되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총: 우선 저희가 요청할 건 다 요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는게 없다 그래서 다가오는 3차 회의때에는 7.8억을 수용을 하고 다만 그 지급 방식에 대해서 보편적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자.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있었다.

인문.정: 인문대학 같은 경우 일단은 보편적 지급이라는 결론을 이미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다. 저희가 사실 등록금환불의제를 다루는 것이 물론 학교에서는 특별장학금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지만, 저희 학생자치

에서 등록금환불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교육권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생계가 곤란해서 등록금환불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7.8억 수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과대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잠깐 들었을 때 7.8억은 어느 정도 회계자료를 다 확인을 한 상황에서 뭘 더 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고 7.8억에 대한 수용 쪽 의견으로 조금은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지?

총: 네. 맞다.

인문.정: 저희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일단 단운위 내에서 회계자료를 공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도 7.8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을 때 일단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7.8억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말씀 드렸다. 그 이유같은 경우는 일단 회계자료같은 경우에서 그리고 회계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여태까지 충분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고 저도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자료를 봤을 때 그 이상의, 7.8억 이상의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도 인식을 한다. 일단 약간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다. 요구할 때 저희가 협의체라는 창구만을 이용했다고 저희 인문대학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인문대학 내에서는 어떠한 의견까지 존재했냐면 회계자료라는 것은 숫자를 나열해서 쭉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당연히 돈을 더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당연히 돈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자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7.8억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이전의 논의들을 약간 거스르는 것 같아 좀 죄송스러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자치를 대표하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협의체에서만 그리고 중운위 논의를 통해서만 이러한 사안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다. 갑자기 회의 늦게 들어와서 그동안의 얘기들을 조금 거스르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래서 만약에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7.8억 수용에 대해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여쭙보신다면 일단 등록금 환불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동의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7.8억을 동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권이라는 의사를 표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다.

총: 네. 우선 설문조사나 카드뉴스를 통한 정보보고를 통해 학우분들께 정보를 충분히 제공드렸다고 생각한다. 자료에 대한 것들은 학교에서도 자료를 준비하려는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으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인문.정: 궁금한 것이 있는데, 회의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예산안 자료 같은 것들을 혹시 단운위까지라도 공개가 아예 안되는 상황인지?

총: 우선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로 열람등급을 제한했기 때문에 학과 대표자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대표자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대표자분들 자율적으로 유도리있게 하시면 된다.

부총: 유도리있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일전에 등록금환불협의체를 했을 때 기획처장이 깔 거면 까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는 직접적으로 주고 설명하는 것은 대외비라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다 설명을 하셔도 무방하겠다.

총: 그리고 만약에 협의체가 끝이 난다면 지금까지 우리 중앙운영위원회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또한 학우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게끔 하는 것도 중운위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의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인문.정: 총학생회장님 말에 공감의 간다. 저희 단운위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학우분들께서 중운위가 했던 노력을 이러한 논의 내용들 협의 내용들을 공개했을 때 학우분들께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의한다. 그런데 학우분들이 과연 등록금 환불을 보실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단운위에서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에 조금은 집중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학우분들이 온전히, 모든 자료를 받아보고 모든 회계 내역과 중운위가 했던 노력들을 다 봤을 때 학우분들이 그걸 100% 다 이해해주실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학교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과 상응하게 학우분들의 재정상황도 코로나19로 어렵다는 맥락에서 나온 애기임을 알려드린다.

총: 오피셜로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운위 대표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해 드린다. 이번년도 명예퇴직자가 7명인데, 7명의 명예퇴직이 모두 반려가 되었다고 한다. 퇴직자 한 명 당 명예퇴직을 하면 보통 1억 이상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그 7억에서 8억이 왔다갔다 거리는 퇴직금의 목돈이 없어서 명예퇴직자 7명도 다 반려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 거기다 주차비도 학교에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 적자가 나서 한 2억 정도 적자가 난 상황이라고 한다. 충분히 학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저희 학생 측도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

간호.비: 간호대학에서 단운위 의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저희는 등록금환불에서 저희의 교육권을 주장하기 때문이 기본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 데, 교육기관이다 대학교가. 상품이 아니고 교육을 받는 기관 인거고 교육의 질이 하락이 되어서 등록금환불을 주장한다고 한 들 교육의 질의 하락 정도를 어떻게 평가 하고 하락이 얼마나 되었으니 얼마만큼 환불을 해달라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강의 만족도하고 학우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등록금환불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이 드는 데, 여기서 저희가 처음 주장했던 것이 학우분들께 돌렸던 설문조사가 근간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는데 학교 측에서 돈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학교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 학교가 돈이 없든 말든 우리가 주장할 것에 대해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한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고 교육의 질이 하락해서 주장을 하는 것임에도 어쨌든 간에 강의의 질은 많이 개선이 된 것이 사실이고 1학기보다 2학기 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성적장학금 감면도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때문에 이제 학교 측에서 등록금환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모두 사용하여서 등록금 환불만 이루어진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었든 교육자로서의 성의를 본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는 7.8억을 수용하는 걸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당연히. 그런데 더 이상 실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선 이미 진행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주가 되면 결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산 전에 모든 것을 확정지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정지어서 모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7.8억 수용을 주장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의과.부: 의과대 동의한다.

간호.비: 더불어 이러한 주장이 있는 데에는 학교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학내구성원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사실 학교에 교수, 직원, 학생까지 학내구성원으로서 요구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이 시국에 학교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도 학교 탓만은 아니고 세계적인 재난 상황인거고, 이런 재정 부담 상황을 학생이 같이 짊어져야 할 의무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학내 구성원으로서 감안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학생이 부담지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등록금 환불에 성의를 보여서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여서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요구를 하였던 것이고 대표자로서, 이에 대해서 정리해서 학우분들께 이해를 시킨다면 이해를 못 할진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신다면 비난받을 대상은 저희인거고 그것이 저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내해야 할 것이지만, 어찌되

있든 간 학우분들께서 과연 수치만 보고 이해를 하실까라는 것을 이유로 더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중간자의 역할로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에 요구를 하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저희만 열람 가능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중간자로서 잘 정리해서 양측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은 저희 몫 이라고 생각한다.

통공.정: 공대도 최종 의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공대도 7.8억 그 이상의 재원은 없음을 인정한 다. 다만 이 인정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완벽하게 납득이 가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7.8억에서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학교 측과 학생자치가 함께 고민하여 학생들에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왔다. 공대가 걱정하는 건 그냥 어떤 줄글로 그 이유가 끝나버리면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학교 측이나 학생자치가 하는 말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저희가 본 대외비 문서들을 전체공개로 하향조정을 요청 드렸던 것이다. 아까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20년 결산자료가 회계감사 이후 5월 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가 학생들에게 왜 7.8억이라는 재원이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는 시기가 5월보다 훨씬 이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자료없이 줄글로 설명을 해서 결산자료는 5월에 올라갑니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우선 대외비 문서에 대한 전체공개 하향조정을 공대에서는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고 싶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7.8억에 대한 인정은, 공대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이다.

사과.정: 사과대도 의견 정리해서 발언하겠다. 우선 비대면으로 학교 시설이 이용이 불가능해졌고 교육의 질이 저하했다는 것은 명백한데, 등록금은 변함이 없는데, 환불을 1에서 1.5% 선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조금 어렵다. 굳이 기준을 마련하자면 1학과와 학사가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니까 1학과와 동일하게 6% 선에서 등록금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로 학생들의 가계사정도 함께 곤란해진 상황에서 3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등록금 반환이 미비하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은 타 단위에서는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협의체 과정에서 학교본부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성의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중운위가 요청한 자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실상 학교가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저희 중운위가 한 것처럼 학교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가용예산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고, 제가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협의체 속기나 행정부처간 간담회 속기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학교가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단 여기까지가 등록금환불과 협의체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다. 저희가 좀 고민을 하느라고 관련 답변이 늦어졌는데 우선 사회과학대학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 우선 현 상황에서는 적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게 앞서서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맥락과 동일한데, 지난 회의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맥락과도 동일한데, 단순히 자료를 달라 하고 우리가 확인만 하고 나서 학우분들한테 말씀드릴 명분이 생겼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립금을 가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이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대랑 동일한 의견이다.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받았을 때 이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저희가 관할하거나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는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표자가 모두 열람했는데 가용할 예산이 없었다는 것보다는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으로 사회과학대학 의견 발언을 마치겠다.

간호.비: 사회과학대학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모두 동의를 한다. 이제 자료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가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여태까지 자료를 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들에 대한 자료 자체가 왜 안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였기 때문에 요구가 포함된 자료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저번 1학과와 이번 2학과 두 가지 등록금이 같

은 비율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시는 성적장학금을 축소하고 진행된 등록금환불이었고, 더불어서 강의평가 만족도도 이번학기에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퍼센테이지가 책정이 돼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

사과.정: 근데 만약에 성적장학금이 지난 학기에는 축소가 되었고, 이번에는 성적장학금 축소가 없는 등록금환불이 진행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38억이라는 동일한 예산이 사용되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학사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38억의 규모로는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었다.

간호.비: 38억이 성적장학금 감면을 하고 그 감면을 한 돈을 끌어다가 38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더불어서 임의장학기금 되어있던 것들에서도 1학기 등록금환불에 사용해서 이번 2학기에 사용 못하는 거고, 그래서 7.8억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강의평가가 많이 좋아졌다고 일반 대면학기보다, 그것을 납득하자는 것이 아니라 1학기과 같은 기준이 아니니까 다르게 책정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사과.부: 일단 간호대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비율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바이지만, 사실상 전공과목의 경우는 1학과 2학기가 개설되는 과목이 달라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변수가 좀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단순히 강의평가 점수가 올랐다고 해서 1학기에 비해서 강의 내용이 영상의 질이 올라갔거나,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고 100% 단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6%에서 1%로 비율이 확 달라질 만큼의 강의 만족도 평가 점수가 올랐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어느 정도 6%와는 비슷한 선으로 맞춰져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서 이번에 성적장학금 감면 없이 등록금환불이 이루어지는 점을 또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성적장학금과 등록금환불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사실 성적장학금은 기존에 저희가 성적우수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선상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다.

간호.비: 성적장학금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상인데,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재원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해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뭔가 말을 하니까 되게 학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통해서 퍼센테이지를 책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다.

인문.정: 아까 학우분들이 수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는 인문대학이 7.8억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인문대학의 근거가 아니라 단운위 내에서 이러한 의견도 나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님과 부학생회장님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최소 6% 지난학과와 비슷한 규모, 성적장학금이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말했다.

총: 많은 대표자분들께서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해주셨다. 저희 또한 총학생회장단도 학교의 편을 들어서 7.8억을 수용하자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학우분들도 저희를 이해해주시고 공감 해주시리라 생각을 한다. 우선 3차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3차 회의 때 7.8억을 수용을 하고 보편적 지급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것인지 논의 진행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의결을 진행할지?

간호.비: 지금 오가는 의견이 다른 것이 단운위에서 수합한 의견도 있고, 사고하고 방법론적인 차이인 것 같아서 사실 추구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회의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의결 봤으면 좋겠다.

경경.정: 경경대 의결 동의한다.

총: 오늘 임시회의고 모든 대표자분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톡 투표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3차 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중운위 또 한 번 임시회의 소집해서 3차회의 방향성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추가의견 있을지?

인문.정: 질문이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3차 회의가 목요일 날 진행될 거라고...

총: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목요일에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게 오피셜이 아니었고 그냥 초안이였다. 그런데 학교 측은 계속해서 선별적 지급을 말을 하고 있고 저희는 보편적 지급을 말을 하고 있어서 학교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목요일은 좀 이른 것 같고 금요일이나 다음주 초에 진행하자는 의견 전달받았다.

인문.정: 감사하다.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거는 등록금환불이랑 별개인데 리포 관련해서 질의내용 스무자로 내외라고 적혀있었다.

총: 그건 학교에서 스무자로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간략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 최대한 간략하게 써달라는 의미에서 20자를 기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든다.

인문.정: 그럼 넘어도 되는지? 저희가 A4용지 한 페이지가 나왔다 두 질문 합쳐서. 맥락 설명이 필요하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 맥락 설명이 필요해서 한 페이지는 아닌데 3분의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총: 아니면 대본은 그렇게 적으시고 오른쪽에 칸 하나 더 만드셔서 개괄적인 내용만 좀 다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인문.정: 알겠다. 감사하다.

통공.정: 학교 측에서는 왜 선별적 지급을 하려 하는지 이유를 말한 적이 있는지?

총: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사실 제 입장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말한 것이다. 1%밖에 안되니 실질적으로 학우분들은 3만원 4만원, 국가장학금 받으신 분들은 1,2만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1,2만원을 줄 바에 정말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100만원씩 드리자. 좀 더 효용성을 봤을 때에는 선별적 지급을 하는 것이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선별적 지급을 요구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등록금 환불을 요구를 하는 것이 교육의 질 하락과 뭐 캠퍼스 내 시설 미이용등의 이유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과는 취지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보편적지급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 답변이 되셨을지? 저도 학교본부의 의중을 잘 모르겠어서 단언을 못 드리겠다.

통공.정: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되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해줘도 욕 먹을까봐 학교가 그걸 불안해할까봐 그런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심으로 여쭙본 것이다.

총: 어떠한 지급방식을 택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고 불만이 있으실 분도 계실 것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학교의 입장은 좀 더 효용성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 전적으로 학교의 의견이다.

총: 추가의견 없으시면 간략한 배경설명과 함께 투표 올리도록 하겠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후 3시까지 제게 리더스포럼 참가자 명단과 질의서 보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죄송한데 참가자명단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적는 건지?

총: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기재하시면 된다.

간호.비: 저희는 단운위가 학과 회장이 따로 없어서 과대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혹시 리더스포럼에 단운위 구성원으로서 4학년 과대 몇 명 정도 참여 가능할지? 어차피 줌으로 진행되는데

총: 과대표가 직선제로 선출되는지?

간호.비: 모두 해당 단위의 직선제로 선출된 분들이다.

총: 기존에는 계속 참가를 하셨는지?

간호.비: 아니다.

총: 그럼 이번에는 참가를 했으면 한다는 입장이신 거고.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줌 시스템이 인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참가자 명단 추이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간호.비: 저희가 리더스포럼이나 학운위도 그렇고 단대에서 단대 회장 부회장 두명밖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비한 게 있어서 한 두명 정도만 참여 가능할지 여쭙고 싶었다.

총: 네. 알겠다.

통공.정: 참가자 명단 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보내드리는 건지?

총: 네 맞다. 이번에 참가하시면 스타벅스 텀블러 드린다. 많은 참가 부탁드린다.

인문.정: 오프라인으로 참여해도 텀블러 주는 건지?

총: 네. 다 드린다.

인문.정: 아니 온라인으로

총: 네 다 드린다. 총학생회실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총: 그러면 의결 진행하도록 하고 3차 회의 전에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오늘 임시회의 고생하셨고, 추후 전달사항 있으면 즉각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의결명	등록금환불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7.8억의 금액을 수용하고, 보편적 지급 방식의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찬	10	반	0	기권	3	가결

본 의결 건에 대한 추가의견 개재 요청에 따라 인문대학생회장의 의견을 개재함.

인문대학이 해당의결(등록금 환불 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7.8억의 금액을 수용하고, 보편적 지급 방식의 채택을 위해 논의를 이어간다.)에서 '기권'에 표결한 이유를 남깁니다.

먼저, 인문대학이 등록금 환불에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7.8억이라는 금액을 수용할 수 없어 '기권'에 표결을 했습니다.

인문대학 학생들은 최대 34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온라인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학기보다 못한 등록금 환불을 진행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금 환불을 진행해도 실 납부액에 4~5% 정도만 환불 받을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성적장학금은 원래 등록금 환불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함) 물론, 학교 측에서 여러 회계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자료 공개범위 한정 - 수많은 적립금 존재상황 -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회계자료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의 '추가재원 확보 불가'라는 답변을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본부의 재정상황을 단순히 회계자료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중앙운영위원회가 협의체 외에 어떠한 방식도 취하지 않고 7.8억 수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저희는 '기권'에 표결을 했습니다. 협의체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개한 것을 제외하고 63대 중앙운영위원회가 62대 중앙운영위원회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자료요구는 가장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협의과정에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 과정이지 무엇을 더 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불 액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상태에서, 재빠르게 학교와의 협상안을 공개하고 학우분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행동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총학생회장님이 올려주신 것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7.8억에 대한 의결이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저 제안이 온전히 이행될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학교본부에 대한 비판, 학생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요구는 이미 진행되었어야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것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했으며, 저것은 책임면피용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문대학은 학생자치를 대표하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이 제시한 요구에서 어떠한 적극적 행동도 취하지 않고 수긍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기권'에 표결했습니다.

이것이 인문대학이 '기권'에 의결한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의결 시 추가의견으로 기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소수의견 등을 남기듯이) 덧붙여, 이 의견은 인문대학 '기권'의사를 표시한 이유이니 따로 피드백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